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소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h1>해외동향보고서</h1>	담당자	하원정 소장
		일시	2026. 5

## CEPA Insight

- 이재명 대통령-프라보워 대통령 정상회담... 양국 최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 플라스틱 가격 급등에 인니, 포장재 다변화 추진..종이 및 유리로 전환 가속
- 만디리은행, 한국서 국가 간 QR 결제 서비스 공식 출시
- 인도네시아 BPOM, 가당 음료 영양 수준 라벨링 규정 곧 발표
- 충남도, 글로벌 불확실성 뚫고 6,900만 달러 수출계약

### ■ 이재명 대통령-프라보워 대통령 정상회담... 양국 최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타국과 맺은 최초의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사례이다. 양국은 정치·안보, 교역·투자, 첨단기술,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교역 확대, 핵심광물 협력, 전기차 생태계 조성, 다난타라 국부펀드 투자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QR 결제 연계 서비스 개시로 국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방산, 공급망, 해양플랜트, AI,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중동 정세 대응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조도 재확인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6. 4. 1.)

## ▣ 플라스틱 가격 급등에 인니, 포장재 다변화 추진...종이 및 유리로 전환 가속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글로벌 정세로 플라스틱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식음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재 다변화와 대체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는 “식음료 산업은 포장 수요에서 플라스틱 의존도가 높다”며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포장재 혁신 가속화를 강조했다. 업계는 종이, 유리, 금속, 재활용 플라스틱 (rPET) 등으로 포장재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는 비용 절감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변화다. 특히 펄프·제지 산업을 기반으로 종이 포장재 성장 가능성이 크고 유통·식음료·전자상거래·물류 등에서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무균 포장 개발과 함께 배리어 페이퍼, 종이병, 나노셀룰로오스 코팅 등 신기술 연구와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리 포장재는 현재 2~3% 수준이나 5~6%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카사바와 해조류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도 장려되고 있다. 한편 플라스틱 가격은 30~100% 상승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유리 포장재 회귀를 검토 중이다. 종이 포장재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전쟁 장기화 시 향후 3~4개월 동안 수출 증가와 함께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pagi.co.id, 2026. 4. 24.)

## ▣ 만디리은행, 한국서 국가 간 QR 결제 서비스 공식 출시

- 인도네시아 대형 은행 PT BANK MANDIRI가 디지털 뱅킹 애플리케이션 '리빈 바이 만디리'에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 QR 결제 기능을 공식 도입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해외 체류 인도네시아 고객의 결제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전략적 행보다. 리빈 바이 만디리 사용자는 한국 내 가맹점에서 QRIS 규격의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서울페이 로고가 부착된 가맹점과 실시간 연동된다. 이번 서비스 확장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국가 간 QRIS 확대 정책과 맞닿아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결제 생태계 구축의 기반으로 평가된다. 리빈 바이 만디리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에 이어 한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6. 4. 14.)

## ▣ 인도네시아 BPOM, 가당 음료 영양 수준 라벨링 규정 곧 발표

- 인도네시아 식약품감독청(BPOM RI)이 가공 식품에 대한 “영양 수준(Nutri Level)” 기반 영양 라벨링 규정 발표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정책은 초기 단계에서 가당 음료 제품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과도한 설탕, 소금, 지방(GGL) 섭취로 인한 비전염성 질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BPOM은 영양 수준 라벨이 소비자들이 GGL 함량을 쉽게 이해하고 더 건강한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라벨은 A~D 등급으로 구분되며, 가공식품 섭취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을 돕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번 규정은 BPOM 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되며, 현재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단계에 있다. 정부는 기업 적응을 위해 전환 기간을 부여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6. 4. 22.)

## ▣ 충남도, 글로벌 불확실성 뚫고 6,900만 달러 수출계약

- 중동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도 충남 케이(K) 제품의 경쟁력은 높았다. 도는 '2026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 107건 6,900만 달러 계약 체결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담회는 충남 7개 해외사무소와 4개 해외 통상 자문관이 발굴한 바이어를 초청해 마련했다. 참가 바이어는 총 100개사로, 도내 참가 기업은 총 250개다. 도내 기업들은 바이어와 1대 1 상담을 통해 958건 1억 8681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 107건 6,900만 달러의 수출 계약(MOU)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체 케이원티에스는 인도네시아 바이어(MIMO MOBILITY)와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도는 바이어와 기업 수요를 사전 분석해 매칭 테이블을 구성하고 전담 통역사를 배치했으며, 관세사·수출 전문위원을 통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가동했다. 도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현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도내 주요 관광자원을 알렸다. 방문객에게 태안을 비롯한 도내 역사·문화 자원과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하고, 관광상품과 이벤트를 홍보했다. 또 주제별 관광코스과 체험형 관광 등을 안내했으며, '위디가디'가 함께해 방문객의 호응을 얻었다.

(출처: 충청투데이 & 쿠키뉴스, 2026. 4. 26.)

 <p>(출처 : 한인포스트)</p>	 <p>(출처 : 충청투데이)</p>
<p>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대통령은 정상회담하고 있다. 2026.4.1</p>	<p>'2026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충남도 제공)</p>
 <p>(출처 : 자카르타포스트/pagi.co.id)</p>	 <p>(출처 : 쿠키뉴스)</p>
<p>수퍼마켓의 음료수 판매대</p>	<p>'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p>

■ 시사점

-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으로 정치·경제·기술 전반의 협력이 확대 될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배터리 핵심 광물 중심의 공급망 협력과 기업 간 투자·사업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QR 결제 연계 등 디지털 금융 협력 확대에 따라 교류 편의성과 서비스 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양 라벨링 등 규제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이 요구된다. 아울러 충남도의 수출 성과와 해외 바이어 연계 확대는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